

아르헨티나의 농업과 농정*

최 윤 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 아르헨티나의 농업 지리와 생산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가진 세계 8위의 영토대국이다. 국토 면적은 약 3억 헥타르로 한반도의 37배에 달한다. 남북으로 3,800km, 동서로 1,400km에 달하는 국토는 약 13%가 경지면적이고 51%가 목초지로 구성되어 있다. 육지면적 대비 경지면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영구초지와 미개발 면적이 넓기 때문이다. 비옥한 농지, 다양한 기후대(아열대, 온대, 건조, 한냉), 연중 정기적인 강수량, 풍부한 태양에너지 및 담수량 등 세계유수의 농업대국으로의 지리, 자연, 환경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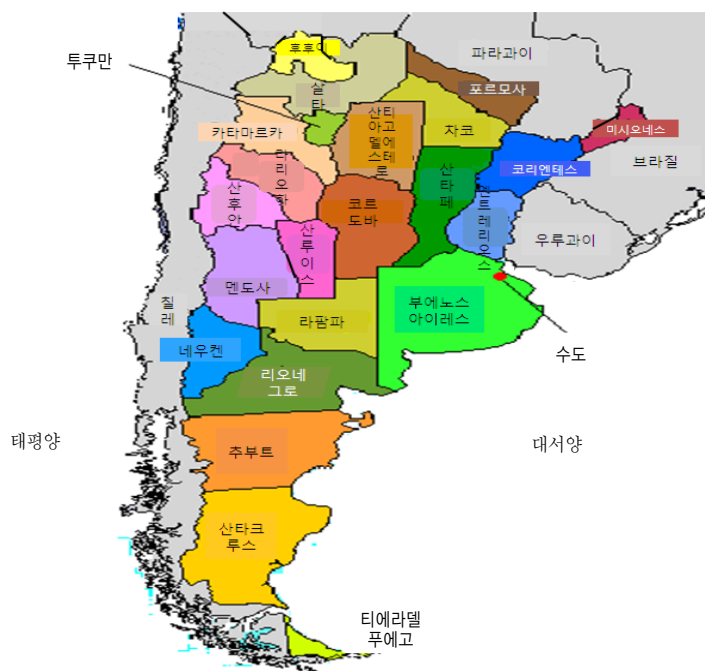
아르헨티나의 농업지대(Ag Belt)는 파라나강 서편과 동편을 포함하는 소위 팜파스¹⁾ 지역에 걸쳐있다. 팜파스 지역은 대서양 기후의 영향을 받아 기후가 온화하고 토양이 비옥하여 농축 산업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작물별로 농업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두는 수익성이 높아지면 서 경작지가 확대되고 있는데 최초 산타페, 코르도바 및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집중되

* 본 내용은 아르헨티나 사료곡물자원 시장 동향 및 경쟁력 조사 연구¹⁾ 등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cochoi@hanmail.net).

1) 팜파스는 세계적인 곡창지대로 반경 600여 km의 약 60만 km²로 한반도 면적의 2.3배에 달한다. 팜파스는 모두 6개 주 -엔트레리오스, 산타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코르엔테스 및 라팜파-에 걸쳐 있다.

그림 1 아르헨티나 지도



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경작지가 북동부와 북서부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두는 공업 원료로도 투입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향생제, 세탁소재, 화장품, 연료, 미술, 플라스틱, 살충제, 섬유 및 접착제 등의 원료가 되고 있다. 식품용으로는 우유, 주스, 국수, 기름, 맥주, 시리얼 및 다이어트 식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콩가루는 목축, 어업, 육계, 낙농제품 및 애완동물용으로 사용된다. 특히 바이오 연료로의 수요가 발생하면서 재배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파종 시기는 9월에서 1월이 주가 되며 수확은 2월에서 6월까지 지방별로 달리 이루어진다. 지방별 생산 분포는 코르도바, 산타페, 부에노스아이레스, 차코, 산타아고 델 에스테로, 살타, 투쿠만 순이다.

밀이나 옥수수과 같은 전통 작물들은 경지면적이 팜파스 주변인 서쪽과 북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옥수수 생산지대는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에탄올 수요와 사료 증가로 크게 각광을 받으면서 재배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파종 시기는 8월에서 12월이 주가 되며 수확은 2월에서 8월까지 지방별로 달리 이루어진다. 지방별 생산 분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산타페, 엔트레리오스, 라팜파, 차코 순이다.

쌀의 생산지대는 파라나강 우편에 집중되어 있으며 북동부 지역인 코리엔테스, 엔

트레리오스, 차코, 포르모사, 산타페 및 북서부의 살타, 후후이 및 투쿠만에서 재배되고 있다. 옥수수나 대두의 생산지대 변방이 주 생산지대다. 파종은 8월부터 12월 걸쳐 하고 있으며, 수확 시기는 2월에서 6월이다.

한편 팜파스는 해바라기, 땅콩 및 아마의 주요 경작 지대이기도 하며, 북동부는 면, 마테차 및 기타 차, 엽연초 등이, 북서부는 사탕수수, 엽연초 및 포도가, 중앙 및 서부 지대는 관개 시설을 이용한 올리브와 포도가 재배되고 있다.²⁾ 커피는 최근 생태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살타 지방의 북부와 미시오네스 주의 산맥 그리고 투쿠만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조만간 국내 소비를 충당하면서 수입이 크게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조사료 부문은 팜파스 지역에 걸쳐 알팔파와 수수 및 조사료용 보리 등이 풍부해 목축업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통 농축산물 외에 일부 수출 특산품이 지방별로 특성화되어 있다³⁾. 리오네그로 지방은 양식업(acuicultura)으로 굴, 홍합 및 바지락조개를 재배하고 있으며 주 수출국인 프랑스다. 황소개구리(Ranicultura)는 고기와 가축을 활용하고 있는데 주요 지방은 라플라타, 후닌, 바이아블랑카 등이며 주요 수출국인 칠레, 미국, 캐나다, 프랑스 및 스페인이다. 토끼 사육(Cunicultura)은 고기와 가축을 취하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엔트레리오스 지방에서 크게 번성하고 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브라질이다. 올리브산업(Olivicultura)은 생산성 증대와 수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술, 유전자, 관개 및 재배에 걸쳐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테이블 포도는 주로 라리오하, 카타마르카 및 산후안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및 브라질이다. 유기농작물 역시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농약과 비료를 투입하지 않는 유기농 꿀, 설탕, 쌀, 옥수수 및 원면 등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꿀의 3개년 평균 생산량은 9만 톤, 소비량은 6천 톤으로 자급률은 1626%에 이르고 아르헨티나는 세계 제 1위의 꿀 수출국이다. 그 밖에 감자와 치즈의 평균 자급률은 각각 105%와 104%를 보이고 있다. 원예 생산은 소비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산타페 등의 대도시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시장과는 멀리 떨어진 멘도사, 리오네그로, 살타, 산티아고델에스테로 및 포르모사 등에서도 원예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작물은 감자, 토마토, 피망, 호박, 양파, 마늘, 고구마이며, 이외에 아스파라거스, 엉겅퀴, 완두콩, 멜론 및 수박 등 질 좋은 제품을 재배하고 있다. 과일 역시 다양한 기후대(열대, 아열대, 온대 등)를 바탕으로 레몬,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살구, 버찌 및 앵

2) http://www.todo-argentina.net/geografia/argentina/agricultura_e.htm

3) <http://html.rincondelvago.com/agricultura-en-argentina.html>

두 등이 생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포르모사와 살타를 중심으로 바나나가 재배되고 있으며, 견과류로 호두와 대추 등이 카타마르카, 멘도사 및 라리오하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다. 화훼는 약 90% 정도가 팜파스에서 제한된 면적이지만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주요 품종은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및 장미 등이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미국에 이어 제2위의 GMO 작물 생산국가다. 아르헨티나 국립농업기술연구소⁴⁾는 2006년에 GMO 작물 도입 10년을 평가하면서 GM 콩(전체 콩 재배의 90% 차지하는 제초제 내성 콩)은 신규로 백만 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소비자에게 양질의 콩을 공급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GM 콩의 확산으로 축산 생산시스템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콩 산업의 과도한 확산은 특정 상품에의 수출이 집중된다는 점과 토양의 비옥도 저해 문제 및 환경 피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도 있으나 긍정적인 영향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작물의 경우 옥수수과 대두가 윤작의 형태를 통해 토양의 유기질을 보완하는 상호 보완 역할을 취하고 있으나 오늘날 바이오 연료와 GMO 작물 생산 증대로 인해 상호경쟁재가 되기도 한다.

농업의 공간적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과거 팜파스 지역 중심에서 점차 북서, 북동 및 쿠요 지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행위자는 중대형 영농전문업체에 의해 과학적 영농체제가 구축되어 가고 있는 점도 큰 변화다.

역사적으로 전략수출상품이 되어 왔던 옥수수와 대두는 오늘날에도 농업정책의 핵심 작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수출 작물은 유통부문의 독과점으로 인해 수출세 인상이나 농지세 인상에 농업 이해자 집단 모두가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2. 아르헨티나 농업 정책의 역사적 발달 과정 고찰

아르헨티나는 역사적으로 농축산물 수출 기반 경제를 형성해 오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농산물 수출경제 체제를 운영해 오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농업정책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혁신적인 사고를 담은 정책 부재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5월 혁명⁵⁾ 200주년을 앞두고 농정의 현

4) Trigo y Cap. 2006.

5) 5월 혁명(Revolución de Mayo)은 1810년 5월 25일 스페인 식민통치를 종식함과 아울러 자주독립을 선언한 기념일이다. 사실 독립선언일(의회 선언)은 6년 뒤인 1816년 7월 9일이다. 대부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독립선언일보다 독립에 대한 자주권을 선언한 날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 헌법은 1853년에야 제정되어 나라의 기틀을 세울 수 있었다.

실을 분석하였으나, 정부를 비롯한 야당과 다른 어떤 경제사회 부문도 대안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 농업의 특성과 시대별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농정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아르헨티나 농업의 역사는 식민지 시대⁶⁾와 독립국가 시기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스페인 식민 초기에는 국제무역질서에 편입되지 못했으며 단순히 가축 종자가 도입되어 현지 야생종과 교배되면서 우수 종자가 번식하게 되자 가우초 그룹이 당시 목축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스페인의 중상주의 정책에 의해 당시 라틴아메리카는 금과 은 중심의 광물자의 공급지가 되었을 뿐이다. 프랑스의 보르봉 왕조가 스페인을 지배하게 되면서 취한 개혁조치로 가장 각광을 받은 곳은 부에노스아이레스항이 되었다. 이전에는 광업경제 체제 하에서 광물자원의 수출이 페루의 카야오항을 통해 파나마로 해서 유럽으로 향하는 루트가 지배적이었으나, 부에노스아이레스항이 주 교역루트의 핵심이 되면서 대서양시대가 도래하였다. 당시 유럽에서의 산업혁명의 성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기인한 것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에 ‘리오 데 라 플라타’ 부왕령이 건립되면서 소가죽과 소금에 절인 쇠고기(tasajo)가 최고의 수출 상품으로 부상하였다.

독립 시기의 농업은 다시 3개의 시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첫째 1810~1852년에는 무역이 개방되어 있었으나, 독립 선언 이후 국가의 틀을 잡는 기간이어서 대내적인 장벽이 존재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1852년에서 1930년으로 소위 아르헨티나 최고의 경제 ‘봄’시대를 기록하였다. 헌법제정으로 국가의 틀이 잡혔으며, 유럽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요 급증, 이민노동자 및 자본 유입, 철로 및 항구 등 인프라 확충, 사유재산권 확대, 철조망 등을 활용한 엔클로우저 확산, 축산물 브랜드 고취, 종자 개량, 제분설비 확충, 영농 기술 도입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다. 19세기 중엽 이후 아르헨티나는 유럽이민을 대규모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들은 농부이거나 일자리를 찾아 유럽을 떠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농사가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아르헨티나에 있어 유럽 이

6) 스페인은 1492년 10월 12일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의 한 섬에 도착한 이후 라틴아메리카 여러 곳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당시 귀중한 자원인 금과 은 등 광산자원이 부족하여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있었다. 최초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 시기에는 식민통치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1700년 이후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가 들어서면서 과거 태평양 연안의 카야오항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1776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대서양의 주 교역항이 되면서 이후 유럽으로부터 이민 노동력 유입과 철로 건설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아르헨티나는 일약 캐나다 및 호주와 더불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민자들은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은 국내 소비 규모가 작아 대부분 수출할 수 있었다.

유럽 이민자들은 토지 개발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였으며, 대부분 농업 부문에 종사하였다. 더불어 농촌 인프라와 기술적인 면에서의 근대화를 촉진하게 되었으며 중국에는 농축산물 생산 활동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유럽 이민자들은 송출국별로 거주지에 차이를 보였다.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산타페를 중심으로 멘도사, 엔트레리오스 및 코르도바까지 거주하였다. 스페인 이민자들은 농식품 업체가 위치한 팜파스 평원을 중심으로 거주하였다. 독일, 네덜란드 및 영국 이민자들은 코르도바, 차코, 부에노스아이레스, 엔트레리오스 및 라팜파 지방에 농촌 집단 부락을 형성하였다. 유대인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타페, 산티아고델에스테로, 라팜파 및 엔트레리오스에 거주를 선호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1930년 대외적 요인(세계경제 위기 및 교역 정체 등)과 오늘날에도 아르헨티나가 안고 있는 대내적 요인(농축산물 수출체제 유지, 수입대체산업화 추진, 장기적 비전 취약 등)에 의해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쇠퇴기를 맞이하였다.

20세기 국가정책은 크게 민주주의, 사회정의 및 성장이라는 이슈가 논쟁이 되어 왔다. 농업은 취약한 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사회정의라는 미명 아래 농업부문의 소득이 재분배되는 과정에 소용되었다. 최근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공급 즉 생산이, 수요 측면에서는 국내 및 해외시장이 핵심 과제가 되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향후 5천만 명에 달하는 국내 소비와 더불어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가 고려해야 할 점으로 부각되었다. 세계경제 규모에서의 참여율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2.8%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에는 0.33%까지 하락하였다. 향후 GDP의 25%까지 수출 비중을 증가해야 할 것이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수출의 품목별 비중을 농산물과 농식품 30~35%, 공산품, 광물질 및 연료의 수출 비중이 65~70%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다.⁸⁾ 오늘날에는 영농업체(Agribusiness)들이 직접경영 또는 대토지농장주와의 계약 영농 등이 활발해지면서 대단위 면적을 과학적으로 영농을 하고 유통 내지 수출에 까지 사업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7) 아르헨티나로의 유대인 이주 역사는 먼저 1492년 스페인의 국토재정복이 종결되면서 스페인 내 유대인들의 추방과 종교 박해를 피해 아르헨티나로 이주해 온 것을 들 수 있다. 이후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빈곤과 유대인 학살을 피해 넘어 왔으며, 19세기 말 아르헨티나로의 이민 붐 시대에는 동구계 유대인, 북부아프리카, 시리아 및 터키의 유대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독일의 유대인 난민들이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유대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3대 도시 중 하나가 되어 있다.

8) <http://www.revolucioncultural.com.ar/LaNuevaPoliticaAgrariaArgentina.htm>

이와 같은 농업의 변화 과정 중에 고려해야 할 또 하나는 토지의 집중도이다. 5%의 인구 층이 전 국토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등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 이어져 오고 있다. 1950년대에 이미 대토지농장주(latifundista)와 소토지농장주(minifundista)와의 토지 편중도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라티퐁디오는 연간 12명 이상에게 항구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농장을, 미니퐁디오는 연간 1가구 또는 2인 이하에게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다.

표 1 아르헨티나 토지 소유별 규모: 대토지농장주 대 소토지농장주

	minifundio		latifundio	
	농가가구 수 대비 비중(%)	농토 대비 비중(%)	농가가구 수 대비 비중(%)	농토 대비 비중(%)
아르헨티나	43.2	3.4	0.8	36.9
브라질	22.5	0.5	4.7	59.5
콜롬비아	64.0	4.9	1.3	49.5
칠레	36.9	0.2	6.9	81.3
에콰도르	89.9	16.6	0.4	45.1
과테말라	88.4	14.3	0.1	40.8
페루	88.0	7.4	1.1	82.4

자료: CIDA(Inter-American Committee for Agriculture Development).

3. 생산-소비-수출 구조의 특성

아르헨티나는 약 4,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 대비 곡물생산량이 많아 생산된 곡물의 상당 부분을 수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주요 작물별 세계 생산량 순위를 보면 대두 3위, 옥수수 5위, 해바라기 3위를 차지하고 있다.⁹⁾ 특히 대두는 직파농법 도입, GMO 종자 개량으로 인한 영농비 절감, 국제 수요 풍부, 수출쿼터가 없고, 대두유 가공 원료 용으로 수요가 많으며,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여 대두농업으로 집중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두 재배 면적의 확대는 목초지를 점령하게 되어 전체 소 사육두수가 5천만 두 이하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는 다시 쇠고기 가격 상승을 야기하게 되면서 국민 1인당 쇠고기 연간 소비량이 2000년대 중반 75kg대에서 60kg 초반 대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또한 대두작물 연작피해로 인해 지력이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9) La Insignia, con datos de CEPAL, Naciones Unidas y la FAO.

대두 부산물의 생산과 수출이 발달한데는 채유종자 쉼분 설비가 시설이 많이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기타 작물의 경우 해바라기씨유와 해바라기씨박의 평균 자급률은 각각 456%와 1018%로 높다. 또한 자급률이 높은 농산물로 꿀(1626%), 잡두(924%), 잎담배(293%), 올리브(153%), 차(137%) 등이 있다.

점차 생산이 전문영농업체에 의해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들은 항상 국제곡물동향에 주목하면서 수확, 저장, 유통, 수출 등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음 해의 재배 작목 및 면적을 결정하는 등 수출 지향적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연간 1억 톤에 상당하는 곡물을 생산하는 아르헨티나의 농업은 이처럼 전문농업경영회사에 의해 대규모화, 기계화되어 있으며, 파종, 방제, 수확, 저장, 가공, 운송 등 단계별로 분업화되고 있다.¹⁰⁾ 대규모 영농은 주로 파라나강 유역에 걸쳐 있다.

한편 농공복합단지 역시 공업과 농축산업 간 연계 등으로 인해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낙농, 육계 및 유지류 등이 주요 농식품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농공연계 산업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수직적 통합 또는 특정 기업이 생산 공정에 따른 협력업체와의 제휴 등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예로 살타와 후후이 지방의 제당산업을 들 수 있다. 대체로 계약을 통한 수직적 통합은 기술, 품질, 가격 또는 생산량 등의 조건을 계약에 포함시킨다. 이런 사례는 특히 과일, 제당 및 낙농 가공업에서 나타난다. 시장 지향적 수직적 통합은 특정 자원 혹은 필수 투입재의 통제로 인해 주로 독과점 형태로 나타난다. 농약과 종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협동조합 형태의 수직적 통합은 주로 낙농, 과일, 쌀, 제당, 사탕수수 및 채종유 등의 분야에서 나타난다.

아르헨티나의 2010년 농업총생산은 국내 총생산(GDP)의 약 7% 수준에 불과하나, 농산물 수출액(대두유 등 1차 가공품 포함)은 총 수출액의 60%에 이르고, 농산물수출세 수입이 연방정부 총 세입의 25% 차지하고 있다.

작물들의 지속적인 생산 증가를 위해서는 제초제, 비료 및 저장 및 건조기 설비와 같은 인프라가 요구되었다. 그 밖에 생산 공정에서 요구되는 트랙터와 수확기 같은 농기계 역시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도입된 대형파종기(Los pools de siembra)는 팜파스 지역의 대규모 농법에 사용되면서 보다 큰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농업은 특정 시기에 자연 재해, 기후변화 및 가격변동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므로 대형 농업영농회사 또는 투자를 통한 컨소시엄의 형태

10) 보다 상세한 대규모영농업체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최윤국, 2008.3 참조할 것.

로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러한 영농법에 대해 투기나 21세기형 영농모델이나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¹¹⁾ 현재 전 경작지의 약 50%가 대영농회사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개인투자자는 최소 5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 경우 투자비용은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 움직일 수 없으며, 투자 수익은 최소 15~25%로 예상한다.

대규모 영농회사는 양질의 농업 기사를 거느리는 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에 필요한 inputs(종자, 파종, 농약, 비료, 농기계, 인력, 교육, 수확, 유통 및 농업 소프트웨어와 정보화 등)를 투입하는 투자기업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로 팜파스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¹²⁾ 반면에 북부와 서부의 기타 지역에서는 생산 공법이 낙후되어 있으며 영농기계화되는 거리가 있다. 이들 주변 지역은 국내 소비용으로 경작하고 있다. 이 밖에 외곽지역으로 파타고니아 지방은 양모 산업, 과일, 가스 및 석유 그리고 수력자원에 특화되어 있으나 국가 경제의 큰 틀에 통합되어 있지는 못하다. 팜파스와 비팜파스 지역에서의 농업은 경제·인구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대형파종기의 작업 모습



출처: <http://www.losangelesmendoza.com.ar/esp/page.php?subsec=articulos&page=07-08/pools-siembra>

팜파스 지역에서의 농업은 일반적으로 관개가 요구되지 않으며, 대규모 영농을 통해 수출에 특화되어 있다. 팜파스 지역의 주요 생산 작물을 보면 밀, 옥수수, 귀리 및

11) Cronista Comercial, 2012-06-06.

12) 최윤국, 2008.3, pp. 41-42.

수수와 같은 곡물류와 해바라기, 땅콩 및 대두와 같은 유지작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대두는 국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데 힘입어 비팜파스 지역으로 경작지가 파급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현재 다양한 규모의 영농이 시행되고 있다. 소농, 중농 및 대농 등 대규모 영농업자들은 보다 큰 투자인 농지 확보, 관개설비, 시장가격 독점 등을 통해 생산성 제고와 아울러 유통 근대화와 수출 구조 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노동력 측면에서는 양질의 노동력 확보와 월 급여제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들은 후에 토지의 소유주 내지 임차인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들과는 반대로 소농과 중농들은 작은 규모의 농토를 가지고 있어 자본 부족으로 인한 신기술 도입이 어려워 생산성 제고에 한계를 보이며 국내시장에 유통하는 것이 전부다. 이들이 소유주가 아닌 경우 토지의 효율성은 낮아지게 되며 작물의 질 역시 낮은 수준을 보이게 된다. 수익은 미미하며 노동력은 가족 구성원이 전부다. 대다수 생산자들은 시장정보에 어둡고 수집상이나 중간 유통 과정에 취약해 대기업 체제하로 편입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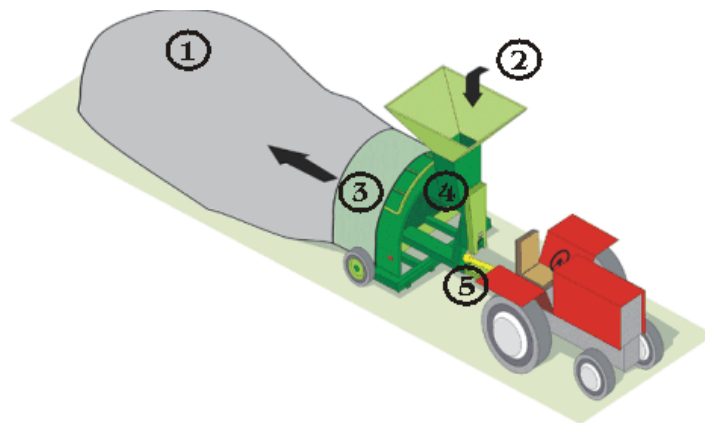
녹색혁명은 소농장주에게는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소농장주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농축산물 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같이 소농장주들은 자원과 경제적 결핍, 소토지 소유, 시장에서 협상력 결핍, 신용 접근 제한 및 기술력 부족이라는 제반 요인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농목수출경제 모델은 상품을 국내 및 해외로의 운송을 위한 철도의 도입으로 가능해졌다. 모든 철로는 수출항인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꼭짓점으로 건설되어 있어 마치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철로의 확장은 운송비를 크게 절감하면서 수출에 기여하였다. 오늘날 농목부문의 인프라(도로, 운송시스템 및 항구 등)는 낙후되어 있다. 더욱이 유통의 독과점 문제가 있으며 항만노동자의 파위가 강하게 남아 있다.

아르헨티나는 곡물생산량이 증대되면서 생산현지에서의 저장 및 가공시설이 증설되고, 선적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게 구비되어 있다. 저장의 경우 곡물 수확량의 30% 정도가 고정 설비에 저장되고 있어 새로운 저장방식의 대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옥수수를 비롯한 대두와 보리 등이 공업용으로 투입이 증대되는 환경에서 수확 후 즉시 저장 설비의 개선 및 확충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폴리에틸렌제의 대형 자루(silo-bolsa)가 크게 각광받기 시작하였다¹³⁾.

13) Cardoso et al. 2007. pp. 3-4.

그림 3 수확 후 즉시 노천 저장 방식의 확산(플라스틱 자루 시일로: Silo-bolsas)



주: 1) 직경 9피트; 2) 깔때기를 통한 곡물 하역; 3) 제어장치를 통해 자루의 팽창을 조절 .
4) 자루를 내용물로 완전히 채우는 장치; 5) 동력 전달(트랙터가 900 RP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자료: <http://www.martinezstaneck.com.ar/Articulos/Fotos/Silograin/EsquemaEmbolsado.gif>

주요 가공시설은 대두유, 해바라기 기름 및 올리브유 등 식물성 기름 가공시설과 밀 제분시설이며,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기 위해 바이오 가공설비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무역항으로는 로사리오항, 산 로렌소항 등 라플라타강 및 파라나강을 이용한 25개 하천 항만을 통하여 8만 톤 규모 곡물 운반선까지 접안할 수 있는 등 선적 및

수송시스템이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다.

농업이 아르헨티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분의 1에 달한다. 농업과 상호 연관이 있는 바이오디젤 산업도 빠르게 성장해 2011년에는 수출이 2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수출 상품별로 보면 대두는 세계 3위, 대두유, 대두박, 해바라기씨유, 해바라기씨박, 레몬, 꿀, 배, 농축 레몬즙은 세계 1위의 수출국이다. 옥수수과 수수의 수출량은 세계 2위이고, 분유와 농축 사과즙의 수출량은 세계 3위이다. 밀은 세계 5위, 쇠고기는 세계 8위, 그리고 치즈는 세계 9위, 그리고 포도주는 세계 10위의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유럽연합과 미국이다.

이 같은 수출 지향적 농산물 생산은 모든 농가가 소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몇몇 중간 규모의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농은 국내 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수출할 수 있는 형편이 되고 있지 못하다.

한편 농산물 수출 지향적 경제성장 모델은 지역 간 소득의 불균형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팜파스 평원은 가장 높은 소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륙의 다른 지방은 농산물 수출 체제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에 쿠요 지방의 포도주와 투쿠만 지방의 설탕 등은 예외적으로 수출에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4. 농축수산부의 조직도 및 농업정책

아르헨티나 농축수산부가 오늘날 집행하고 있는 주요 농정은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협력사업 등으로 대별된다. 먼저 농업부문 주요 프로젝트를 살펴보자. PROARGEX는 아르헨티나 농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프로젝트다. 차별화된 제품을 지속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한편 중소영농업체의 부가가치 제고를 도모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PRONATUR는 농촌관광프로젝트로 농촌개발을 통해 관광자원을 생산하는 것을 도모한다. 민간부문의 농촌관광단체나 협회 그리고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PROINSA는 토양연구소 간의 토양 분석 결과를 국가 분석기술 규범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를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산림 분야에 있어서는 생태 다양성 보존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는 생태 시스템을 통해 산림의 다양성 보존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SPS - MERCOSUR¹⁴⁾ 프로젝트는 메

14) Mercosur는 1991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가 체결한 남미남부공동시장이다. 2006년에 베네수엘라가 가

표 2 아르헨티나 농축수산부(Ministeri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Pesca) 조직도

농축수산차관	농업국	농목조정관 농기계, 농지계약 및 투입재과 농림생산과 농림산물 유통과
	축산국	축산물생산과 축산물유통과
	낙농국	낙농전략기획과 낙농생산과
	수산물국	수산정책과 수산협력과 수산기획과
	농가소득 증대 및 신기술국	환경업무담당관 생명기술과 재정지원과
정책 협력차관 - 국가재해보험관	제도조정국	지방 및 비정부기구 협력과 농촌 청년과 산-학-연 제도개선과 국회 및 정부 간 협력과
	정책조정국	행정정책 업무분석과 국제농식품 조정협력과
농촌개발 및 가족농 차관	가족농지원국	가족농 운영과 제도개선과
	지역경제개발국	농지개발과 지역개발과
대외협력관		언론소통과, 정보교류과
기술행정조정관		정보화추진과 행정총괄과 인적자원개발과 분쟁조정과
감사관		회계 및 법규 감사관, 운영감사관
산하 독립적 연구기관		INASE(국립종자연구소) INIDEP(국립수산물개발연구소) INTA(국립농목기술연구소) INV(국립포도 및 포도주개발연구소) SENASA(국립농식품위생연구소)

자료: <http://www.minagri.gob.ar>

르코수르 회원국간 농축산품의 위생 검역의 규범 및 검역절차를 조정하는 협력 프로젝트다. 향후 회원국 간 무역교류에 있어 통합과 협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천연자원의 지속가능관리 프로젝트는 특히 산림부분의 지속가능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지방 및 비정부기구 차원에서 조립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PROINDER는 농축산업 가족농의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주무부서가

입되었으며, 이후 남미 최대 경제통합체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농축수산업부다. 약 4만 명에 달하는 소농의 생활개선과 조직과 참여의 수준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PROSAP은 지방 농업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이다. 농축수산부의 투자가 주요 재원이다. PRODEAR는 농촌 가족을 나라의 사회경제적 삶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프로그램이다. PRODERNOA는 농촌 지역의 생산 및 서비스 활동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소농과 극빈자 계층의 가용자원을 극대화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PRODERNEA는 국제농업개발기금의 재정지원으로 집행되는 농축수산업, 농식품 및 차코, 코리엔테스, 포르모사 및 미시오네스 지방의 생산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PRODERPA는 아르헨티나 내 저개발 지방인 추붓, 네우켄, 리오네그로 및 산타크루스 주의 가난한 농촌 인구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촌개발 프로젝트다. Genero Mercosur는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여성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PROVIAR는 소규모 양조장의 제반 설비를 강화함으로써 생산의 안정화와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협력 사업별 기능을 보면 PEA2(2010~16)는 정부주도로 추진하는 농식품 및 농공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종사자와의 협력 플랜이다. BIOTECNOLOGIA AGROPECUARIA는 농축산업과 식품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명기술공학을 접목하는데 목적이 있다. SIIA는 농축수산부 주도로 농축산업 부문에 정보화를 접목하여 생산, 품질, 유통 등 전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DIMEAGRO는 농식품 시장 관리 사업으로 부문별 정책의 경제 평가와 거시경제와의 조화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현하고 있다. ORA는 농업 재해를 관리하는 것으로 재해 보험의 확대와 다양성 그리고 적절한 보상 수단과 범위를 연구하고 있다.

농업재정은 보다 많은 농업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생산 증대,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중·소농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보다 많은 지원을 부여하고자 한다. DNRAI는 농식품의 세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 장려, 다자·지역·양자 간 협상과 국제 협상을 통해 세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분쟁 해결을 중재하기도 한다. ALIMENTOS는 농산물과 임산물의 가공과 무역을 촉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농산품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 규범을 통일 내지 간소화하고 표준화를 도입함으로써 농산품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무역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CODEGEA는 농업부문의 생태 시스템과 환경을 고려한 특별 규범을 제정하여 친환경 농업을 지속하는데 목적이 있다. RENAF는 가족농 지원 사업으로 모든 농업정책

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소농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사업이다. PROSAP(지방농업서비스프로그램)은 1992년 농축수산부가 지역경제 생산 프로세스(인프라, 재정지원, 기술 혁신, 고용창출 등)를 최적화하여 농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¹⁵⁾

아르헨티나의 농축 생산지대를 크게 두 그룹으로 대별하면 먼저 가장 개발이 잘 되어 있고 신용 제공도 수월하며 국제곡물시장에서 가격경쟁력도 높고 고용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기업 간 협력도 잘 갖추어져 있는 팜파스 지역이다. 또 하나의 그룹은 팜파스를 제외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매우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포도주, 과수 부문이 있으며, 이외는 반대로 저개발, 노동력 부족 및 열악한 시장접근성을 지닌 지방이 있다. 정부는 특히 팜파스 외 지역은 클러스터 중심으로 개발하여 부가가치 제고, 금융지원, 토지 사용 관리,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기 위한 윤작, 농식품 개발 등을 위해 농·공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¹⁶⁾

5. 주요 농업정책과 특징

아르헨티나는 풍부한 농업자원을 지닌 국가로 전략적 수출상품이 농축산물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변화도 농업부문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농업 정책 부문에서 가장 큰 이슈는 수출세¹⁷⁾ 인상 문제였다. 2008년 5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곡물 수출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농업 종사자들이 곡류의 시장 공급을 중단하는 한편 거리를 점령하는 등의 시위를 벌였다. 농축산물 수출세 인상을 추진한 데 반발해 농축산물 출하가 중단되고 고속도로가 봉쇄되는 등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곡물과 육류 공급 부족 사태를 빚은 바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수출세를 인상한 것은 국제 농산물 가격이 치솟자 농산물의 국외 반출을 막아 국내 물가를 잡고, 세수도 늘리겠다는 의도였다. 시위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수출세 인상을 국제가격 폭등 시 인하 하는 등의 중재안으로 농업 종사자들의 분노를 진정하곤 했다.

15)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 참조할 것. <http://www.prosap.minagri.gob.ar/>

16) <http://republica-economica.blogspot.kr/2011/01/los-beneficios-del-prosap.html>

17) 수출세는 특히 2002년 에두아르도 두알데(Eduardo Duhalde) 대통령에 의해 부활되어 2009년 4월 작물별 수출세율을 보면 대두 38.5%, 밀과 옥수수 20%, 쇠고기 15% 등으로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정수입 확대 및 물가안정 메커니즘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2년 6월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정부가 시작한 농지세 인상을 추진함으로써 또 다시 농업 종사자들이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과거 공시시가로 세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시세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¹⁸⁾. 이번 농지세 저항은 도로와 마을에서 4대 농민단체인 아르헨티나농촌사회(SRA), 아르헨티나농지연맹(FAA), 아르헨티나농촌연합(CRA), 농축협동연맹(Coninagro) 등이 참여하였다. 저항의 한 수단으로 단기간 수출 선적 행위를 태업하는 등 정부의 농지세 인상으로 인해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강도를 높여갈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농업 단체들은 주 정부의 세금 인상 조치에 반대하며 시한부 파업을 선언했다. 농업단체들은 가뭄 및 홍수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에 이어 정부의 농축산물 가격 인상 억제 정책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저항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를 시작으로 발발한 것은 곡물 수출의 급증으로 인해 지 지역 농촌의 지대 역시 크게 증가한데에 기인하고 있다. 주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조세의 비중은 매우 커서 2015년의 대선을 앞두고 부에노스아이레스주지사는 건전재정을 기반으로 성장, 교육에의 투자, 공공위생, 아스팔트 포장, 주택, 하수구, 식수 등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단체들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정부 발표의 40%가 아닌 농지세를 300% 가까이 인상할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목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¹⁹⁾

농민들은 가뭄으로 인해 대두와 옥수수 수확이 큰 감소를 보이는 가운데 농지세 인상으로 인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농업부는 대두와 옥수수 2011/12 생산을 가뭄으로 인해 각각 4,150만 톤과 2,01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수출세나 농지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수출세나 농지세 인상을 하면 농업관련 이해집단들은 길거리로 나오고, 정부는 마지못해 인하를 해 주곤 하였다. 농촌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초단기적인 이해관계로 묶으면서 해결을 하는 것이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출 물량을 줄이는 한편 세수 증대를 위해 수출세나 농지세를 들먹이면, 전국의 농업 생산자들이 꺾기를 한다. 친정부 단체들도 이에 반대하는 데모를 조직하고, 거리는 곧 깃발과 냄비 등으로 뒤덮인 분노한 농민들로 넘치게 된다.

18) BUENOS AIRES (Reuters), 2012.6.10.

19) <http://ar.tiempo.yahoo.com/provincia-agro-argentina-intenta-subir-impuesto-030108467-finance.html>

아르헨티나는 대두와 옥수수의 수출대국이다. 2008년에 이어 2012년에도 농업인들의 저항은 수출 선적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한편 심각한 정치 위기로 파급되고 있다. 그러나 로사리오 지역의 대규모 수출업체들(Cargill, Bunge, Dreyfus 및 Noble)은 이미 계약된 물량을 수출하기 위한 필요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2011/12 수확량은 가뭄의 피해를 크게 입었으며 생산자들은 특히 주요 곡창지대인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정부가 부과한 각종 세금 인상은 생산 코스트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로사리오 곡물거래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농산물 수출의 약 8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항인 로사리오에 들어오는 트럭은 6월 7일 4,044대 였는데 이는 전년 동일 대비 5,326대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²⁰⁾ 그러나 향후 농민의 저항이 심해질 경우 로사리오 항으로 진입되는 트럭의 수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다. 농산물 생산자들의 저항은 파업, 수출항으로 향하는 도로 봉쇄, 집회 등으로 확산되면서 현 크리스티나 정부의 정치적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나처럼 농산물 수출세 인하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구태 의연한 대처 방법이다.

그러나 일부는 농지세 인상으로 인한 저항은 단지 곡물 비축량이 충분하지 않은 수출업체에 영향을 줄 뿐이며, 대규모 수출업체 및 가공업체들은 비축량이 충분하여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저항 역시 2008년의 경우처럼 현 키르체네르 정부에 큰 타격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²¹⁾ 오늘날 농정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논쟁이 되는 것은 수출세, 수출쿼터제 및 외국인 농지보유 한도다.

농산물 수출세율은 대내외 환경여건에 따라 변동되기도 하지만 작물별로 다르다. 2010년 현재 대두 38.5%, 대두유 35%로 가장 높으며, 기타 곡물은 20% 이상이며, 쇠고기 15%, 과일 및 채소 5%, 포도주 2.5%다. 특히 대두(대두유 포함)의 수출세 수입은 전체 농산물 수출세 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다.²²⁾ 농산물 수출세의 제도적 도입 배경을 보면 수출세 수입이 정부 재정의 1/4를 차지하면서 복지 중심의 정부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재정의 주요 수입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내시장 식료품 가격을 국제곡물가보다 낮게 공급을 보장하고 있다.

수출쿼터제는 2006년부터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쇠고기, 밀 및 옥수수 등에 대해

20) <http://www.agroclipping.com.ar/2012/06/07/Agro-de-Argentina-inicia-huelga-nacional-con-impacto-limitado/>

21) <http://diario.latercera.com/2012/06/02/01/contenido/mundo/8-110250-9-alza-de-impuestos-a-la-tierra-desata-nuevo-conflicto-del-agro-en-argentina.shtml>

22) 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자료 인용.

수출쿼터제를 도입하고 있다. 수요가 많은 대두는 수출 쿼터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수출 쿼터량은 품목별 생산량 및 국내 소비량을 감안하여 수출 쿼터를 정하고 있으며, 수출업체 쿼터배정은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2010/11년도 경우, 국내 공급 필요량을 밀 650만 톤, 옥수수 800만 톤으로 우선적으로 정하고 이 물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밀 600만 톤, 옥수수 700만 톤에 대하여 수출쿼터를 배정하였다.²³⁾

농업용 토지 외국인 소유 제한법(제 26,737호)²⁴⁾는 2011년 12월 28일 관보에 공포되어 있다. 농지 소유 제한 내용을 보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당 토지소유한도를 1,000ha로 제한하고 있으며 주, 시, 군별 외국인 총 소유면적은 동 지역 농경지 총면적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동일국적 소지 외국인 토지 소유 총 한도를 상기 15% 중 3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농경지 관련 정부협의회(신설)는 낙후지역에 대한 외국인 소유 한도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 동 협의회는 법무부가 주관하며 농축수산부, 국방부, 내무부, 환경부가 참여하게 된다. 입법 배경을 보면 현재 아르헨티나 국토 총면적 278백만ha, 농업용 토지 170백만ha 가운데 외국인 소유 토지는 5.8백만ha 내지 17백만ha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국규모의 농지대장이 없어 외국인 농지 소유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 소속으로 농경지 등록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6. 과제와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위한 시사점

아르헨티나의 농업은 대내외적인 요인에 따라 새로운 도전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농업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과제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²⁵⁾.

아르헨티나 농업의 문제점은 기후 재난, 전쟁, 세계경제위기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부 정책의 유효성 여부에 있다. 농업은 천혜의 여건을 지니고 있어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식민지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대토지소유주들이 최근 전문영농기업에 모든 과정을 위탁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굳이 보조금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과거 1940~50년대 수입대체산업화를 실시하면서 농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과거 지도자들

23) 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자료 인용.

24) 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자료 인용.

25) Mario A. Cadenas Madariaga, 2008.

의 경제 철학이 지금도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부문은 단지 국민 복지를 위한 농산물 가격 관리 등 페론 시대²⁶⁾의 중요한 사회정책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정부에서도 그 기초가 지속되고 있다. 단지 100ha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소농의 경우 신용, 기술, 유통 상의 리스크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 금융 및 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지방간 격차도 존재하고 있다. 팜파스를 벗어난 지역은 정부 보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철로, 육로 및 댐의 인프라 문제다. 운송 상의 문제로 가격 경쟁력을 지닐 수 없다. 더불어 국세의 지방 배분 문제다. 아르헨티나는 연방제를 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지방은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세의 정당한 배분과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정부의 징세 권한 축소가 관건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수동적 운영과 공공지출의 제한은 지방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원주민 문제다. 아르헨티나는 백인 혈통이 지배적이기는 하나 유럽인과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원주민 수도 약 400만 명에 달한다. 원주민들은 특히 지방의 소외된 장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농법을 이용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의 삶을 다른 아르헨티나 국민들과 경쟁할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한 문제다.

향후 농업부문의 공급 증대를 위한 전망으로는 관개 자동화 시스템, 인프라 확충, 경지면적 확대, 농촌정보화, 조사연구, 금융서비스, 소농 지원정책, 저장 설비 및 과학 영농을 통한 생산 증대 등이 되겠다.

현재의 농업 시스템에 안주하고 있었던 아르헨티나는 최근 이웃 나라 브라질의 농업부문 성장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농업정책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브라질은 최근 10년간 대두와 옥수수 모두 2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아르헨티나는 동기간에 약 40% 성장에 그쳤기 때문이다.²⁷⁾

아르헨티나는 오랜 기간 농산물 생산 및 수출시스템을 가동해 온 경험이 풍부한 나라다. 우리나라 농업의 세계화의 한 방편으로 양 국가 간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농촌 부문의 정보화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 사업을 구체화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과 농촌정보화 사업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등 성공 사례를 협력 사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생산-수확

26) 페론은 집권 당시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경제의 근간인 농업부문의 이윤을 근로자와 사회 전반에 배분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였다.

27) <http://www.cadena3.com/contenido/2012/03/17/93901.asp>

-출하-유통-재고-수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검토하여 정보화 할 수 있는 사업을 협력 사업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르헨티나 농축수산부의 각종 협력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상호 공생의 차원에서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르헨티나 곡물거래소(La Bolsa de Cereales)에 상주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2~3년 간 곡물의 거래 전 과정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곡물거래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정보가 노출되고 있지 않다. 이는 농업 부문 협력 사업을 큰 틀에서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실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전문가의 양성과 교류의 활성화다. 이제 농업부문에서의 협력 역시 다른 부문과의 협력과 마찬가지로 협력대상국의 문화·경제적 가치를 존중하는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농고와 농대 등 학부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라틴아메리카 지역전문가의 배출이 시급하다.²⁸⁾ 양성된 지역전문가는 아르헨티나 곡물거래소, 농업관련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여 현지 사정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 협력단과 연계하여 농고와 농대의 학생들을 현지의 농고 내지 농대로 일정 기간 학습하게 하여 현지의 농업 전문인력과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자료 인용.

최윤국. 1996. 「아르헨티나의 농업현황과 협력 가능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349.

_____. 2008. 「아르헨티나 사료곡물자원 시장 동향 및 경쟁력 조사 연구」. 한아협회, 정책연구 08-01.

Cadenas Madariaga, Mario A. 2008. “LA NUEVA POLÍTICA AGRARIA ARGENTINA”. Exposición pronunciada el 20 de agosto del 2008 en el Ateneo de la Republica.

Cardoso et al. 2007. Estudio de la Evolución de la Humedad de los Granos individuales en silo-bolsas de Maíz y Soja. INTA,

CIDA(Inter-American Committee for Agriculture Development)

Cronista Comercial, 2012-06-06.

28) 머니투데이(2012.6.24.)에 따르면 중국통상학전공 과정이 많은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는 중국의 경제제도, 권력구조, 통상정책, 금융시장, 지적재산권, 세무회계 등을 실무와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시키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속적 수출효자시장인 라틴아메리카 관련해서도 관련 전공의 운영이 시급한 시기다.

La Insignia, con datos de CEPAL, Naciones Unidas y la FAO.

Trigo, Eduardo J. y Cap., Eugenio J. 2006. Diez años de cultivos genéticamente modificados en la agricultura argentina. Inta.

Reuters. BUENOS AIRES. 2012.6.18.

[http://ar.tiempo.yahoo.com/provincia-agro-argentina-intenta-subir-impuesto-030108467 – finance.html](http://ar.tiempo.yahoo.com/provincia-agro-argentina-intenta-subir-impuesto-030108467-finance.html)

<http://diario.latercera.com/2012/06/02/01/contenido/mundo/8-110250-9-alza-de-impuestos-a-la-tierra-desata-nuevo-conflicto-del-agro-en-argentina.shtml>

<http://html.rincondelvago.com/agricultura-en-argentina.html>

<http://republica-economica.blogspot.kr/2011/01/los-beneficios-del-prosap.html>

<http://www.agroclipping.com.ar/2012/06/07/Agro-de-Argentina-inicia-huelga-nacional-con-impacto-limitado/>

<http://www.cadena3.com/contenido/2012/03/17/93901.asp>

<http://www.losangelesmendoza.com.ar/esp/page.php?subsec=articulos&page=07-08/pools-siembra>

<http://www.martinezystaneck.com.ar/Articulos/Fotos/Silograin/EsquemaEmbolsado.gif>

<http://www.minagri.gob.ar>

<http://www.prosap.minagri.gob.ar/>

<http://www.revolucioncultural.com.ar/LaNuevaPoliticaAgrariaArgentina.htm>

http://www.todo-argentina.net/geografia/argentina/agricultura_e.htm